

李 “위기 극복” ... 尹 “정권 심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출범식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3·9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본격적인 유세 대결에 들어갔다. 대선과 함께 서울 종로와 서초강,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세가 펼쳐졌다. <관련기사 3, 4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민심은 여전히 냉랭했다. 역대급 비호감 구도에 코로나 19 대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대선 체감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에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에 부산 부전역 앞에서 첫 유세를 시작,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첫날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부산과 대구 유세에서 “코로나 19 초

이재명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와 국민 맡길 수 없어”

윤석열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시키겠다”

심상정 “輿, 수구 부활시켜” ... 안철수 “미래 일자리 창출”

기에 저는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를 확보했고, 모든 시설을 폐쇄했다”고 강조한 뒤,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했다. 이날 이 후보가 ‘경부상행선’을 타는 동안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를 광주, 정세균 전 총리는 전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 등 자신의 연고지를 각각 나눠 맡아 ‘세뭍이’에 나섰다. 이들은 저녁에 서울에서 이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한다. 이 후보 측은 중앙당 선거대책위, 각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에서 유세차 총 306대를 동원하는 등 지역 구석구석을 찾는 ‘현장형’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계광장에서 도심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각 지역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거,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선거”라며 “저 윤석열 앞에는 민생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와 유세차를 타고 이날 저녁까지 ‘골목골목 이동 유세’에 나섰다.

윤 후보 측은 선거 운동에 2030 청년들을 전면 배치한 ‘청년유세단’을 투입하는 한편, 총 300여대의 유세차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AI 윤석열’이 소개한 지역 공약 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 대구의 변화가인 반월당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어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유세

에서 양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겨냥, “지금 전세계에서 과학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수용 법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감히 대통령 후보 중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새벽 4시40분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호남으로 이동해 전북의 노동 현장을 돌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탄핵된 수구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광주로 이동,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을 방문하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편, 각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대면 선거운동’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편지’라는 제목의 대선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이 후보가 단점이 많지만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도 이날 국민의힘 책임 당원 전 원에게 개별적으로 ‘AI 윤석열’이 지지호소 인사를 하는 영상 메시지를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3000명

코로나 병원 중심 집단감염
전국 5만7177명 최다 기록

광주·전남에서 병원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확진자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특히 광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15일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도 이날 낮 동안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도 합산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2285명, 전남 1317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일 확진자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0시)이 되기 전에 이미 시도에서 36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4일 처음으로 2000명(2209명)대로 진입한 이후 5일 2378명, 6일 2343명, 7일 2256명, 8일 2631명, 9일 2922명, 10일 2649명, 11일 2791명, 12일 2721명, 13일 2803명, 14일 2909명으로 11일째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대규모 확산 중심에는 병원·요양원 등 집단시설과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집단 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남구 한 종합병원에서는 2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03명이 됐다. 광주지검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996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8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 이날 0시 기준 목포 213명, 여수 200명, 나주 172명, 순천 164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전남에서는 여수 259명, 순천 229명, 목포 219명, 광양 131명, 나주 106명 등 22개 시군에서 1317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국적으로도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7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13일 5만6431명보다 746명 늘면서 이를 만에 다시 최다치가 됐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314명으로, 전남(306명)보다 8명 늘면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5일간 위중증 환자는 271명→275명→288명→306명→31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26.8%로 전날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남(21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74명 이후 27일 만에 가장 많은 수다. 누적 사망자는 7163명, 누적 치명률은 0.49%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판단요건 차이 없는데 항소심만 가면 감형? ▶6면
- 쇼트트랙, 오늘 밤 마지막 불꽃 질주 ▶18면
- 매력적인 도시공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2면

아이오페

SUPER CLUB

아이오페 베스트 상품 구매하면
슈퍼클럽 자동 가입!

아이오페 슈퍼클럽 가입 방법

아이오페/한울 베스트 상품을
아리따움 매장, 마트 화장품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구매시
자동 가입됩니다.

대상 제품

레티놀 엑스퍼트 0.1%, 0.2%, 0.3% (MINI 제외)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 쓰리 펠티드
슈퍼비탈 에센셜 크림 리치

한울

극진 에센스 기획세트
극진 크림 기획세트

※ 슈퍼클럽 회원 유지 기간은 구매일 포함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기간 내 재구매 시, 구매 당일 포함 3개월까지 회원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

01

아이오페 전 품목 (MINI 제외)
한울 일부 품목
[극진, 백화고, 세살썩 라인]
바이탈뷰티 일부 품목
[슈퍼클렌징 프리미엄, 홍삼 진액수]
10% 추가 할인

02

레티놀 구매 시(MINI 제외)
5천원 슈퍼쿠폰 증정
[레티놀 및 쿠폰 제외 상품 적용 불가]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됩니다.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주문/결제 단계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슈퍼쿠폰은 주문/결제단계에서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슈퍼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레티놀 엑스퍼트 0.1% MINI는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에서 제외되며, 1인당 하루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한울 시 슈퍼클럽 등급은 종료되며 지급된 혜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